

대학생의 HACCP 인지도 조사

김준미 · 구난숙
대전대학교 식품영양학과

A study on HACCP knowledge of collage students

Jun Mi Kim · Nan Sook Koo
Dep. of Food and Nutriton, Daejon National University

1. 서론

우리나라 식중독 발생건수는 1997년 94건에서 2007년 510건으로 10년 사이에 약 5.4배 늘어났다 [1]. 가정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은 발생규모는 적으나 가족구성원의 잘못된 식품위생행동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[2]. 영양사, 학교급식종사자들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및 수행에 대한 기초자료는 많지만[3,4],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식품위생 수행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.

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HACCP 인지도를 알아보고 효율적인 식품위생교육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.

2. 연구방법

2.1 조사대상 및 기간

본 연구는 대전지역의 대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2007년 11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

2.2 조사내용 및 방법

설문지는 기존자료[5]를 토대로 일반사항, 식품위생지식 및 실천, 식품위생교육의 필요성, HACCP의 인지도에 관한 질문 등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. 설문지를 조사대상자에게 배부하여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고, 부실하게 기재한 것을 제외한 107부가 사용되었다.

3.3 통계분석

본 연구의 자료는 SPSS V.14.0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. 일반사항과 식품위생교육의 경험, HACCP의 인지도는 빈도분석을 하였고, 식품위생지식·실천, 식품위생교육의 필요성은 t-test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. 통계적인 유의성은 $p < 0.05$ 를 기준으로 검증하였다.

3. 조사결과

3.1.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

조사대상자 중 남학생 36.4% 여학생 63.6%이며, 자가거주자는 48.6% 객지거주자는 51.4%였다.

3.3 식품위생 지식 및 실천정도

조사대상자의 식품위생의 지식 및 실천정도에 대한 결과는 <표1>과 같다.

<표1> 식품위생 지식 및 실천정도

구분	지식	실천	t-value
개인위생 ¹⁾	4.64±1.075 ^{a)}	3.10±1.266	NS
식품구분사용·보관 ²⁾	5.03±1.120	2.84±1.354	15.552*
세척·소독 ³⁾	2.83±0.400	2.34±0.726	NS
온도·시간관리 ⁴⁾	3.75±0.982	2.80±1.103	NS
전체	16.21±2.137	11.14±2.957	17.028*

* $p < 0.05$ NS : Not significant

a) 평균 ± 표준편차

1) 개인위생 : 6점만점 2) 식품구분사용·보관 : 6점만점

3) 세척·소독 : 3점만점 4) 온도·시간관리 : 5점만점

개인위생, 식품구분사용·보관, 식품세척·소독, 식품온도·시간관리에 대한 점수는 총 20점으로

하였다. 조사대상자의 지식평균점수는 16.21점, 실천평균점수는 11.14점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(p<0.05). 특히 식품구분사용·보관에 관한 지식평균점수는 5.03점, 실천평균점수는 2.84점으로 대학생들은 식품위생지식은 있으나 실천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(p<0.05).

3.4 식품위생교육의 필요성

식품위생교육 경험 및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결과는 <표2>와 같다. 조사대상자 72%는 식품위생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 식품위생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객지거주자 30.2%, 자가거주자 14.7%는 매우 도움된다라고 답하였고, 큰 도움안된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자가거주자는 5.9%, 객지거주자는 응답자가 없어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(p<0.05).

<표2> 식품위생교육의 경험 및 실생활에서 도움되는 정도

		N(%)				
식품위생교육의 경험		있다	없다	전체		
성별	남	25(64.1)	14(35.9)	39(36.4)	NS	
	여	52(76.5)	16(23.5)	68(63.6)		
주거 형태	자가	34(65.4)	18(34.6)	52(48.6)	NS	
	객지	43(78.2)	12(21.8)	55(51.4)		
	전체	77(72.0)	30(28.0)	107(100.0)		

		식품위생교육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정도						
		매우 도움된다	조금 도움된다	보통이다	큰도움 안된다	전혀 도움안된다	전체	t-value
성별	남	6(24.0)	17(68.0)	2(8.0)	0(0.0)	0(0.0)	25(32.5)	NS
	여	12(23.1)	33(63.5)	5(9.6)	2(3.8)	0(0.0)	52(67.5)	
주거 형태	자가	5(14.7)	23(67.6)	4(11.8)	2(5.9)	0(0.0)	34(44.2)	2.195*
	객지	13(30.2)	27(62.8)	3(7.0)	0(0.0)	0(0.0)	43(55.8)	
	전체	18(23.4)	50(64.9)	7(9.1)	2(2.6)	0(0.0)	77(100.0)	

* : p<0.05 NS : Not significant

3.5 HACCP의 인지도

조사대상자의 HACCP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결과는 <표3>과 같다. HACCP에 대하여 45.8%가 모른다, 36.4%가 전혀 모른다고 답하였다.

HACCP에 대해 알고 싶은 점은 43%가 의미, 28%는 적용되는 부분, 19.6%는 필요성, 9.3%는 장점으로 조사되었다. 조사대상자의 72%는 HACCP 마크를 본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.

<표3> HACCP의 인지도

					N(%)
HACCP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					전체
잘안다	조금은 안다	모른다	전혀모른다		
1(0.9)	18(16.8)	49(45.8)	39(36.4)		107(100.0)
HACCP에 대해 알고 싶은 점					
의미	필요성	적용	장점		
46(43.0)	21(19.6)	30(28.0)	10(9.3)		107(100.0)
HACCP 마크를 본 경험					
있다		없다			
30(28.0)		77(72.0)			107(100.0)

4. 결론

조사대상자는 식품구분사용·보관의 지식은 높은 반면 실천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 72%가 식품위생교육의 경험이 있으며, 객지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자가생활을 하는 학생들보다 더 식품위생교육이 실생활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. HACCP에 대해 45.8%가 모른다, 36.4% 전혀 모른다고 조사되었고, HACCP에 대해 43%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어 하였다. 72%가 HACCP 마크를 본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참고 문헌

- [1]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, <http://fm.kfda.go.kr/>
- [2] 김운주, 최은희, “충북지역 주부의 식품 위생 지식 및 행동 평가”, 생활과학연구논총 제5호 : 2002
- [3] 김영옥, 김성애, 이선영, “대전지역 학교급식 영양사의 위생관리 수행도 및 HACCP 인지도 평가”, 충남생활과학연구지, 19(1) : 111-130 2006
- [4] 신혁순, “HACCP(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)에 관한 학교급식종사자의 교육 및 실천수준 조사”,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, 2006
- [5] 윤지선, “대학생의 식품위생 및 안전 의식과 HACCP (Hazard Analysis and Critical Point) 인지도 조사”,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, 2005